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의 효과*

최 미 영**

본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학습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개발된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2개교의 5학년과 6학년 61명의 학생에게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사회정서적 유능성 검사도구, 수업 동영상, 학생 활동지, 교사 일지, 학생 인터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증상을 완화시키고, 사회정서적 지식 수준을 증가시키며,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SEL 핵심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EL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 구조 중심 협동학습, 사회정서적 유능성, 초등학교 음악

차 례

- I. 서론
- II. 초등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연구도구
 - 3. 연구절차
 - 4. 자료 처리 및 분석
- IV. 연구결과
 - 1. 사회정서적 유능성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 2. 질적 분석 결과
- V.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16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3289)

** 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choimiyong@dnue.ac.kr)

I. 서론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기에 있어 인지적 발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간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사회화와 정서 경험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의 실상은 학업 성취 중심의 교육 환경이 학생들을 학업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선행학습으로 몰아넣어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정과 사회성 결여는 학교폭력, 따돌림, 비행 등 여러 가지 사회정서적 부적응 문제의 증가로 이어져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하 SEL)을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SEL은 1994년 미국에서 열린 Fetzer Institute 회의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social-emotional competency)을 증진시키고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학습과정이다. SEL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학교 차원에서 SEL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SEL를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학생들에게 사회정서기술을 직접 훈련시키는 방법과 사회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풍토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신현숙, 2011; Elias, 2009; Zins, Weissberg, Wang & Walberg, 2004). 전자의 경우, SEL을 적절한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SEL과 교과와의 연계는 사회정서기술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SEL을 통해 배운 사회정서기술을 교과학습에 적용해 볼 수 있고, 교과시간에 배운 학업지식과 기술을 정서와 행동에 연결시켜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여러 교과 중 음악교과는 SEL의 정서적 부분과 사회성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음악교과와 SEL의 연계는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은 음을 통해 인간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이다. 감정과 사고의 표출로서 음악은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즉 회로애락과 같은 자신의 감정을 대신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이러한 음악이 가진 의사소통의 기능은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는데, 음악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교류로 이어지게 된다. 학생들은 음악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책임감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음악적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협동, 양보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음악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며 자기인식, 자기관리 등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학생들은 자기가

해를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활용하고, 자신이 느끼는 정서와 일치하는 음악을 찾으며,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 음악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음악의 기능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유능감과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하므로 음악은 SEL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Edgar, 2013; Pellitteri, 2006).

한편, 긍정적인 상호의존, 개별적 책무,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을 기본 원리로 하는 협동학습은 교실 내 학생들의 긍정적인 상호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SEL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할 때에는 형식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지양하고 실제 상황에 적합한 비형식적 교수학습활동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교사의 단기적인 행동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학생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기 관리 전략을 사용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한 것을 평가하고 내적 자기 강화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순히 개별학생의 발달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박승희, 김수연, 2003; Hyson, 1994; Lewis, Schaps, & Watson, 1996). 이러한 점에서 협동학습은 SEL의 실행과 관련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교수학습방법이다. SEL에서 협동학습 구조를 활용하면, 교사는 사회정서기술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사회정서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차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고, 또래 관계의 증진이나 상호 지원적이며 협력적인 학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홍정아, 박승희, 2014).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정서적 부적응 문제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초등학생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을 지도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SEL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음악교과와 연계하여 지도된다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SEL과 음악교과의 연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양적으로 제한적이고, 비경험적 연구이며, 주로 정서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SEL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개발된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초등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본 연구에서 적용된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구조화된 SEL 프로그램 중 하나인 Strong Kids를¹⁾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장에서는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의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초등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음악학습과 연계하여 정서 이해, 분노 관리, 공감, 인지적 재구성,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 대인간의 문제해결 등과 같은 사회정서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은 <표 1>과 같다. 총 12차시 수업으로, 음악과 교육과정과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고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요소를 추출하여 Strong Kids 프로그램의 주제 및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활동과 협동학습 구조를 선정하고 교수학습지도안과 수업자료를 개발한 후,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 1>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 구조와 내용

차시	주제	주요 내용 및 활동	협동학습 구조
1	사회정서학습을 알아보자!	- SEL 핵심역량 이해하기 - 학급 규칙 만들기 - 음악수업에서 필요한 규칙 만들기 - 자신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점검하기	만장일치 의사결정 토의토론, 코너학습, 피라미드 토의토론
2	내 마음 속 관찰하기	- 자신의 기분 이야기하기 - 다양한 감정 이해하기 - 비발디 “사계” 중 ‘봄’ 감상하기 - 악곡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음악적 특징과 관련짓기 - 편한 감정과 불편한 감정 분류하기	모둠 인터뷰, 문제 보내기, 돌아가며 쓰기, 같은 생각 찾기

1) Strong Kids는 학업적 기술과 같이 사회정서적 기술에 대한 명시적 교수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심리적 유연성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총 12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정서 이해, 감정 확인, 분노 관리,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 대인간 문제해결, 인지적 재구성 등의 사회정서기술을 다룬다. 각 차시는 사회정서기술의 소개, 모델링, 역할놀이, 실습 시나리오와 적용, 소집단 및 대집단 토론과 토의, 과제제시 등을 통해 사회정서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담임교사, 교과담당 교사, 학교심리학자 또는 학교상담자 등이 가르칠 수 있다(Merrell, et al., 2007).

차시	주제	주요 내용 및 활동	협동학습 구조
3	마음 속 감정을 표현해요.	- 음악의 분위기와 느낌 탐색하기 - 느낌을 표현한 음악적 표현방법 이야기하기 - 음악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 연주 평가하기	돌아가며 쓰기/ 칠판 나누기, 돌아가며 말하기/ KWL 차트/ 모둠 특과원, 생각-짝-나누기
4	마음 속 소방관 되기	- 분노의 풍선 불기 - 분노 모델 이해하기 - 분노 조절 기술 이해하기 - 분노 조절 기술을 사용하여 분노 관리하기 - 분노를 관리한 느낌 이야기하기	돌아가며 말하기, 이야기 엮기, 문제 던지기, 돌아가며 읽기, 동전 내놓기, 생각 내놓기
5	네 마음을 이해해.	- 감정 단서 이해하기 - 감정 단서 찾기 - 짝꿍의 근황이나 감정 상황 인터뷰하기 - 짝꿍에게 음악 만들어 선물하기 - 음악 선물을 준 친구에게 편지 쓰기	듣고 그리기/ 휴대폰 구조, 카드 뽑기/ 돌아가며 쓰기/ 세 문장 만들기, 3단계 인터뷰
6	STOP! 부정적인 생각	- 감정의 강도를 온도계에 표시하기 - 사고 오류 알아보기 - 음악적 상황에서 사고 오류 찾기	6색 사고모자/ 전문가 그룹
7	부정적인 생각 바꾸기	- 음악적 상황에서 사고 오류 확인하기 - 사고 오류 수정의 단계 살펴보기 - 토론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 바꾸기 -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 본 느낌 이야기하기	칠판 나누기, 두 마음 토론, 동전 내놓기
8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아요!	- 긍정적 사고에 대한 생각 나누기 - ABCDE 모형 이해하기 - ABCDE 모형에 맞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기 -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노래에 랩을 넣어 불러보기 - 모둠별로 만든 랩 발표하고 평가하기	웹 구조, 이야기 엮기/ 문제 보내기, 카드 뽑기/ 이야기 엮기, 모둠 콜라주
9	너와 나, 우리 문제 해결하기	- 자신이 경험한 갈등해결방법 이야기하기 - 갈등해결방법 익히기 - 문제해결방법을 사용하여 음악적 문제 해결하기 - 문제를 해결한 바람직한 사례 선정하기	브레인라이팅/ 칠판 나누기, 갈등해결주사위, 브레인스토밍/ 이 사람을 찾아라, 돌아가며 말하기

차시	주제	주요 내용 및 활동	협동학습 구조
10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 스트레스 확인하기 - 스트레스를 다루는 긍정적인/부정적인 방법 알아보기 - 컵타 연주하기	문제 던지기, 돌아가며 말하기/ 칠판 나누기, 모듬 콜라주
11	우리 반 음악회 계획하기	- 목표 설정의 적절한/부적절한 사례 구분하기 - 목표 획득의 6단계 배우기 - 우리 반 음악회 계획하기 - 우리 모듬의 연주계획 세우기 - 연주계획 평가하기	창문열기, 동전 내놓기, 칠판 나누기
12	우리 반 음악회	- 음악회 최종점검 및 마음가짐 이야기하기 - 음악회 열기 - 팀의 연주와 핵심역량 평가하기 - 사회정서학습을 학습한 소감 이야기하기	창문열기, 돌아가며 이야기하기, 돌아가며 쓰기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연령에 적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SEL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존 프로그램이 일부 학생 위주의 단기적 효과만을 제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보편적인 형태의 학급 중재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음악교과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교사의 추가적인 수업 부담감이나 학생의 학습 부담 없이 음악수업시간에 적용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대체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교수학습과정에서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하였다. SEL 내용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협동학습 구조를 선정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최대화하고 협동적인 과제 수행 및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정서적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사회정서적 지식과 기술이 학교내외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과 기술이 일반화되도록 하기 위해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최미영, 2017).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초등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에 의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2개교의 5학년과 6학년 각 1개 학급 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초등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수업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상호작용과 미시적인 변화를 진실하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검사도구, 관찰, 학생 포트폴리오,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수집과 방법의 사용(triangulation)은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결과 해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함이다(Patton, 2001).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Murrell이 2007년과 2011년에 개발한 Strong Kids 평가도구(Strong Kids Units Test, Social-Emotional Assets and Resilience Scales)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증상, 사회정서적 지식,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3요인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정서적 증상과 특성 및 회복탄력성을 묻는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4점 척도로 반응하고, 사회정서적 지식을 묻는 문항들은 진위형과 4지선다형으로 응답한다(정답은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학생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을 관찰하고, 학생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며,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위해 12차시 수업을 녹화하고, 수업 진행의 과정과 학생들의 반응을 연구자와 2명의 협력교사가 관찰하여 현장 노트 형식으로 매 차시 작성하였다. 학생들은 매 차시 수업과정에서 개인 활동지 및 모둠 활동지를 작성하고, 매 수업 후 과제를 수행하고 수업내용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작성하였다. 학생 포트폴리오는 프로그램 적용 후 회수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협력교사교육, 사전 검사, 프로그램 적용, 사후 검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절차

연구단계	내용	기간
사전 검사	Strong Kids 평가도구 사용하여 검사 실시	2017년 3월
프로그램 적용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 적용	2017년 3월-6월
사후 검사	Strong Kids 평가도구 사용하여 검사 실시	2017년 6월
자료 분석	검사지 통계 작성 및 결과 분석	2017년 6-7월

본 연구에 참가한 협력교사는 모두 초등음악교육전공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고 프로그램 실시방안을 논의한 후,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앞서 교과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적용 일주일 전에 Strong Kids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은 2017년 3월 둘째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음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일주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시 당 60-80분 동안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후에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사회정서적 유능성 검사도구의 각 문항은 점수화(사회정서적 증상의 점수범위: 0-30점, 사회정서적 지식의 점수범위: 0-20점,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의 점수범위: 0-105점)되어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에 따른 사회정서적 유능성의 차이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로 설정하였다.

수업 관찰, 학생 포트폴리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1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주제 영역을 찾고, 개방적 코딩방법으로 자료들을 귀납적 범주분석을

하였다. 영역에 따라 모든 자료에 약호를 적고 주제별 파일을 만들어 영역별로 분석하고 해석하였으며, 주제별 약호화를 통해 의미를 규명하고 사례들을 주제 파일별로 분류하여 결과에 인용하였다.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까지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편파적 견해와 해석의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회정서적 유능성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1) 사회정서적 증상의 변화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증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정서적 증상 점수 및 사전-사후 검사에 따른 사회정서적 증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사회정서적 증상의 기술통계량 및 *t*-검증 결과

	N	사전 검사		사후 검사		<i>t</i>	<i>p</i>
		M	SD	M	SD		
전체	61	10.07	4.80	7.62	5.65	2.490	.016*
내면화 증상	61	4.18	2.54	3.10	2.43	2.341	.023*
외현화 증상	61	5.92	3.23	4.11	2.98	3.548	.001*

사회정서적 증상의 전체 점수는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감소하였고, 이 감소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t=2.490$, $p<.05$). 사회정서적 증상의 하위요인으로 내면화 증상과 외현화 증상 모두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2.341$, 3.548 , $p<.05$). 이 결과는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4>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증상의 기술통계량 및 *t*-검증 결과

	N	사전 검사		사후 검사		<i>t</i>	<i>p</i>
		M	SD	M	SD		
남학생	26	9.12	5.43	6.12	4.78	-1.292	.202
여학생	35	10.77	4.57	8.74	6.04	-1.832	.072
5학년	30	9.10	4.25	5.63	3.38	-1.505	.138
6학년	31	11.00	5.50	9.55	6.71	-2.864	.006*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증상의 변화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 점수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학년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증상의 변화는 5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6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864$, $p<.05$).

2) 사회정서적 지식의 변화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정서적 지식 점수 및 사전-사후 검사에 따른 사회정서적 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사회정서적 지식의 기술통계량 및 *t*-검증 결과

	N	사전 검사		사후 검사		<i>t</i>	<i>p</i>
		M	SD	M	SD		
전체	61	12.28	2.58	14.11	2.22	-4.474	.00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정서적 지식 점수는 사전 검사 점수가 12.28 점, 사후 검사 점수가 14.11점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적 지식의 사전-사후 검사에 따른 *t*-검증 결과를 보면, 두 점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4.474$, $p<.05$). 이는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지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표 6>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지식의 기술통계량 및 *t*-검증 결과

	N	사전 검사		사후 검사		<i>t</i>	<i>p</i>
		M	SD	M	SD		
남학생	26	12.12	2.57	13.65	2.04	-.423	.674
여학생	35	12.40	2.63	14.46	2.32	-1.408	.164
5학년	30	11.67	2.40	14.00	1.88	-1.857	.068
6학년	31	12.87	2.66	14.23	2.54	-.394	.695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지식 점수는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 점수보다 모두 높아졌다. 그러나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3)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의 변화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 점수 및 사전-사후 검사에 따른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의 기술통계량 및 *t*-검증 결과

	N	사전 검사		사후 검사		<i>t</i>	<i>p</i>
		M	SD	M	SD		
전체	61	61.62	15.65	67.61	18.77	-2.292	.025*
책임감	61	5.36	1.89	5.85	2.19	-1.493	.141
자기 조절	61	18.66	6.25	21.13	6.51	-2.507	.015*
사회적 유능성	61	18.67	5.35	20.70	6.08	-2.339	.023*
공감	61	18.93	4.51	19.92	5.34	-1.203	.234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의 전체 점수는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증가하였고, 사전-사후 검사에 따른 *t*-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92$, $p<.05$). 이 결과는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 수준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의

미한다.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책임감과 공감을 제외한 자기 조절과 사회적 유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2.507$, -2.339 , $p<.05$), 프로그램이 책임감과 공감 수준의 변화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었으나 자기 조절과 사회적 유능성 수준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의 기술통계량 및 t -검증 결과

	N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p
		M	SD	M	SD		
남학생	26	62.30	18.25	67.38	20.75	.292	.771
여학생	35	61.11	13.67	67.77	17.47	-.079	.937
5학년	30	62.53	14.11	68.03	16.30	.444	.659
6학년	31	60.74	17.20	67.19	21.16	.173	.863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은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p>.05$).

2. 질적 분석 결과

분석 영역은 SEL의 5가지 핵심역량을 ‘나’, ‘너’, ‘우리’의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음악적 사고 역량을 한 개의 영역으로 추가하여 총 네 개의 영역으로 하였다(<표 9>).

<표 9> 분석 영역

영역		제목	분석 자료
SEL 핵심역량	자기인식 자기관리	나를 조율하고	수업 동영상 활동지 수업 소감문 면담 교사의 수업일지 교사의 관찰
	사회적 인식	너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우리 모두를 위해	
음악적 사고 역량		음악으로 바라보는 세상	

1) 나를 조율하고

SEL의 핵심역량을 알아보는 1차시에서 학생들은 ‘자기인식’과 ‘자기관리’에 대해서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되자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여러 악기가 독특한 음색을 지니듯 학생들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 조율이 잘 된 악기는 고유의 음색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으나 조율이 되지 않은 악기는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투른 학생들은 감정을 부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거나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은 음악 활동을 포함한 글쓰기, 그림 그리기, 토의하기, 면담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과 사고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꼈다.

감정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거의 못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졌다.

감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땀 뚫린 것 같다.

-<2차시. 내 마음 속 관찰하기> 수업 소감문 중-

사고 오류를 배우고 비난게임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남 탓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짜 ‘개인화’나 ‘흑백사고’처럼 그런 사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6차시. Stop! 부정적인 생각> 수업 소감문 중-

게임할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화를 덜 내게 되었다.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12차시. 우리 반 음악회> 수업 소감문 중-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행동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반대로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다. 본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감정을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이러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해

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학생들의 수업 소감문에는 부정적인 감정 또한 정상적인 감정이며 누구나 느끼는 감정임을 이해하고 이를 바람직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계속 참고 참고 하다가 너무 화가 났는데, 대화하면서 차근차근 잘 풀어나갈 수 있겠다.

원래 화를 참는 편인데 가끔은 화를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시. 마음 속 소방관 되기> 수업 소감문 중-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참기만 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7차시. 부정적인 생각 바꾸기> 수업 소감문 중-

갈등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갈등이 없어도 안 될 것 같다.

-<9차시. 너와 나, 우리 문제 해결하기> 수업 소감문 중-

‘무조건 참는 것’에 대해서 예상 외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폭력이나 강요에 의한 해결방법은 당연히 옳지 않지만 그 밖의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바람직할 수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해결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출발점은 자기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

-<9차시. 너와 나, 우리 문제 해결하기> 교사의 수업 일지 중-

이렇듯 자신의 감정 및 사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층 성숙해진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 너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프로그램 초반에 실시한 SEL의 핵심역량 자기평가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인식’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짜깁의 기분을 알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2~3명을 제외하고 답하기를 주저하였다. 놀이 시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어울리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기분이 어떤지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이 모호하고 애매한 것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답을 찾아내는 일이라기보다는 공감하는 것, 즉 모호하고 애매하지만 웬지 그럴 것 같다고 상상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 또는 정해진 답을 찾는 활동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다른 이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에게 몰두해 있다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이나 처지

를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처지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모둠 활동의 결과와 무관하게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속상하다는 수업 소감 문이나,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열심히 정한 것이 채택되지 못하니까 허무하다.

친구의 감정을 알아보기인데, 표정을 봐도 잘 모르겠다. 앞으로는 표정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다.

-<2차시. 내 마음 속 관찰하기> 수업 소감문 중-

자기와 의견이 다른 친구들, 특히 본인은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아이들에 대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6차시. Stop! 부정적인 생각> 교사의 수업일지 중-

본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구조 중심 협동학습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여기서의 ‘참여’란 ‘발표’와 ‘경청’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므로 학생들은 계속해서 타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1차시에서 짝꿍의 기분을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면에서 공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친구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야기 속 인물의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인공 아이가 리코더 연습을 하는데 까칠이가 비웃어서 두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고 선생님께 불려가 반성문을 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상황에 대해 아이들은 ‘까칠이는 비웃은 것이 아니고 그냥 웃은 것인데 비웃었다고 오해받아서 속상할 수도 있다’라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4차시. 마음 속 소방관 되기> 교사 수업 일지 중-

○○이의 입꼬리가 내려가고, 두리번거리는 행동으로 보아 울컥하고 불안했을 것이다.

-<5차시. 네 마음을 이해해> 활동지 중-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할 때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고오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6차시. Stop! 부정적인 생각> 수업 소감문 중-

두 마음 토론을 할 때 내가 열심히 이야기 하였는데, ○○이가 아니라고 했다. 내 생각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의 생각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니 더욱 재미있었다.

-<7차시. 부정적인 생각 바꾸기> 수업 소감문 중-
자신이 만든 힐링 카드를 주고 싶은 사람으로 ‘동생을 돌보느라 힘드신 엄마’, ‘시험 공부하느라 쉬지 못하는 언니’, ‘잠이 부족한 아빠’ 라고 답하는 아이들이 감동스러웠다.

-<10차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교사 수업 일지 중-

공감이 표현되면서, 공감을 받은 경험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학생들의 사회적 인식과 공감 능력의 향상은 관계 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이 행동을 할 때 그들의 행동은 타인의 행동과 세 가지 방식으로 관련된다. 첫째는 타인의 성공을 증진시켜주는 관계이고, 둘째는 타인의 성공을 방해하는 관계이며, 셋째는 타인의 성공이나 실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이다 (Johnson & Johnson, 1989). 학생들은 프로그램 초반에 활동 결과에 대해 세 번째 방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둠의 활동 결과물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수용되었는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판단의 기준과 중심은 점차 ‘나’가 아닌 ‘우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것이다. 학생들은 ‘우리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타인에 대해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

친구들과 할 때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아쉬웠다. 그래도 모둠이 잘 되어서 재미있었다.

-<5차시. 네 마음을 이해해> 수업 소감문 중-
우리 팀이 쓴 게 모두 나오지 않아서 조금 서운했다. 그래도 모두 노력해서 만들어서 뿌듯하다.

-<8차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아요!> 수업 소감문 중-
모둠원들의 마음 또는 생각을 존중하게 되었다.

-<11차시. 우리 반 음악회 계획하기> 수업 활동지 중-

일부 소극적인 학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평소 말수가 없거나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평소 소극적인 학생)가 빠르고 크게 의견을 말해서 신기했다.

-<6차시. Stop! 부정적인 생각> 수업 소감문 중-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수업을 통해 친구들에게 더 잘 다가가게 되었다.

-12차시 후 학생 면담 중-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모둠 안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고학년은 창피나 망신을 당할까 두려워 학급 전체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내어놓는데 소극적이다. 그러나 모둠 안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훨씬 감소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또래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고학년의 특성상 보편적인 생각이나 태도에 겹으로 따라가기 쉽지만, 모둠에서는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마음껏 독창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다(정문성, 2003). 둘째, 본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독려하였기 때문이다. 평소 친구들로부터의 비난이나 비판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데 소극적이었다면,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경험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갈등은 개인 간에 이해관계와 인식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할 때 더욱 심화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다. 프로그램 초반에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에 대해 ‘짜증이 났다’라고 표현했고, 교사에게 이들에 대한 불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친구의 문제를 ‘방해요소’로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가 박자를 못 맞춰서 엄청 많이 연습했다. 그러니까 ○○이가 엄청 잘하게 되었다. 어려웠지만 서로 맞춰서 하는 걸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다.

친구와 곡을 정해서 생긴 갈등을 우리가 배운 것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앞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배운 것으로 해결해야겠다.

-<9차시, 너와 나, 우리 문제 해결하기> 수업 소감문 중-

연주하다 실수를 해도 남 탓을 하지 않고 격려해주어서 부끄럽고 좋았다.

친구와 싸워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12차시, 우리 반 음악회> 수업 소감문 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4) 음악으로 바라보는 세상

음악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리듬이나 가락과 같은 음악적 요소로 표현하는 예술이라면, 음악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작곡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유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감상곡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을 확인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음악적 특징과 연결 지어 사고하도록 격려했다. 곡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과 생각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이 표현되었으며, 같은 곡을 감상하더라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음악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음악을 듣고 이유를 표현하는 것이나 기분에 대한 단어를 찾는 것이 재미있었지만 어려웠다.

-<2차시, 내 마음 속 관찰하기> 수업 소감문 중-

○○이는 이 부분(“사계” 중 ‘봄’의 일부분)이 기쁘기도, 슬프기도 한 감정이라고 했다. ○○이의 감정을 확인해보기 위해 아이들과 다시 한 번 음악을 감상해보았다. 낮은 음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부분과 높은 음을 오르락내리락 연주하는 부분이 번갈아 나오는 부분을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2차시, 내 마음 속 관찰하기> 교사의 수업 일지 중-

2차시에서 감상곡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확인하고 3차시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음악적 요소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시작 부분은 조용하고 느리게 시작하다가 점차 빨라진다, 트라이앵글의 많은 소리가 아름답다, 현악기로 느리게 반복해서 연주되는 부분이 슬프게 느껴진다 등

-<3차시, 마음 속 감정을 표현해요> 활동지 중-
음악 소리에 대해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노래를 듣고 쓰는 게 재미있었다.

-<3차시, 마음 속 감정을 표현해요> 수업 소감문 중-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락을 연주하는 활동에서는 단순히 리듬이나 가락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정이나 분위기를 표현하도록 격려하였는데, 평소 음악적 기능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도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색다른 느낌이고 재미있었다.
느낌을 살려 연주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다양하게 연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래를 할 때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같이 계속 하니 재미가 느껴졌다.
-<3차시, 마음 속 감정을 표현해요> 수업 소감문 중-

이 음악의 분위기와 특징을 살려서 리코더로 2중주 할 수 있다.

-<11차시, 우리 반 음악회 계획하기> 활동지 중-

본 프로그램에서 음악의 역할은 단순히 음악 요소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상곡에 대해 작곡가나 친구들과 교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음악적 개념과 원리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깨우치게 되었다. 또한 기능적으로 가창과 기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생각을 표현하도록 격려 받음으로써 배우고 익히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음악 활동에 흥미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V. 결론 및 논의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결론과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 사회정서적 증상, 사회정서적 지식,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증상을 완화시키고, 사회정서적 지식 수준을 증가시키며,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EL 프로그램 처치가 사회정서적 증상에 유의미한 감소 효과를 보고한 연구(Brown, 2006; Isava, 2006), 사회정서적 지식의 증진을 일관되게 보고한 연구(Gueldner, 2006; Harlarcher, 2008; Isava, 2006; Nakayama, 2009; Tran, 2007; Whitcomb, 2009), 그리고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의 증진 효과를 보고한 연구(Feuerbon, 2004; Gueldner, 2006; Harlarcher, 2008; Nakayama, 2009)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사회정서적 증상의 하위요인과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의 일부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은 사회정서적 증상의 내면화 증상과 외현화 증상의 수준을 낮추고,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자기 조절과 사회적 유능성의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EL의 내용, 교수학습 자료, 중재 절차, 중재 기간, 학생 및 교사의 요구, 사회정서적 환경 등에 따라 사회정서적 유능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김광수, 김해연, 2009; 정숙경, 2007)를 지지한다.

셋째,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유능성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의 효과는 학생의 성별이나 학년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EL 프로그램이 사회정서적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실험·검증한 선행연구 결과를 찾지 못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본 프로그램은 성별이나 학년과는 관계없이 사회정서적 유능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은 자기인식과 자기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은 감정과 생각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해 봄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꼈고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다섯째,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은 사회적 인식과 관계 관리 역량에 도움을 주

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였으며, 갈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켰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정서적 지식과 기술들이 학습에 의해 습득될 수 있다는 Mayer와 Geher(1996)와 Epstein(2001)의 주장을 지지하고, 정서지능은 성장기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발달하며(Salovey & Mayer, 1990) 청소년기까지 정서지능의 발달이 계속된다는 설명(Goleman, 1995)을 뒷받침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의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SEL 기회가 제공될 때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이 긍정적으로 발달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권낙웅, 2011; 홍정아, 박승희, 2014)와 일관된 연구결과로, SEL이 사회정서적 부적응 문제가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일부 하위요인(책임감, 공감)에 대해서 본 프로그램의 중재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의 책임감과 공감 수준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재 내용과 시간이 다소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책임감과 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마련하는 등 SEL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 음악교과 SEL 프로그램의 효과를 교육현장에서 검증한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이 비교적 단기간에 실시되었지만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증상의 감소, 사회정서적 지식의 증가,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가져온 것은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거나 SEL 음악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SEL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권낙웅 (2011). 사회정서적 프로그램이 사회정서적 성과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김광수, 김해연 (2009). 공감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275-300.
- 박승희, 김수연 (2003). 정서적 능력 향상 프로그램: 장애를 포함한 개인의 다양성 이해 촉진의 한 접근. **정서행동장애연구**, 19(1), 139-161.
- 신현숙 (2011). 학업수월성 지향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8(2), 175-197.
- 정문성 (2003).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정숙경 (2007).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학연구**, 20(1), 121-136.
- 최미영 (2017).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교과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음악교육연구**, 46(2), 157-178.
- 홍정아, 박승희 (2014). 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정서학습이 통합학급 학생들의 정서지능과 또래지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9(2), 213-239.
- Brown, M. H. (2006). Effects of the Strong Kids curriculum on students at risk for internalizing behavior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Oregon).
- Edgar, S. N. (2013). Introducing social emotional learning to music edu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Update*, 31(2), 28-36.
- Elias, M. J. (2009). Social-emotional and character development and academics as a dual focus of educational policy. *Educational Policy*, 23(6), 831-846.
- Epstein, J. L. (2001).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Boulder, CO: Westview Press.
- Feuerbon, L. (2004). *Promoting emotional resiliency through instruction: The effects of a classroom-based prevention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NY: Bantam Books.
- Gueldner, B. A. (2006).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social-emotional learning program with middle school students in a general education setting and the impact of consultation support using*

- performance feedback*.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Harlarcher, J. E. (2008).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s a universal level of support: Evaluating the follow-up effect of Strong Kids on social and emotional outcom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Hyson, M. C. (1994).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Building an emotion-centered curriculum*.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Isava, D. M. (2006). An investigation on the impact of a social emotional learning curriculum on problem symptoms and knowledge gains among adolescent in a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Johnson, D. W. & Johnson, R. T. (1989).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ory and research*. Edina, MN: Interaction.
- Lewis, C. C., Schaps, E., & Watson, M. S. (1996). The caring classroom's academic edge. *Educational Leadership*, 54, 16-21.
- Mayer, J. D. & Geher, G.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17, 89-113.
- Merrell, K. W. (2007). *Assessment tools*. Retrieved December 20, 2015, from <http://strongkids.uoregon.edu/tools.html>
- _____. (2011). *Social emotional assets and resiliency scales: Professional manual*. Lutz, FL: PAR.
- Merrell, K. W., Carrizales, D., Feuerborn, L. L., Guelder, B. A., Tran, O. K., & Walker, H. (2007). *Strong Kids-Grades 6-8: A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urriculum*. Baltimore, MA: Brooks.
- Nakayama, N. J. (2009).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the Strong Kids curriculum on social-emotional knowledge and symptoms of elementary aged students in a self-contained special education sett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Patton, M. (2001).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CA: Sage.
- Pellitteri, J. S. (2006). The use of music in facilitating emotional learning. In J. S. Pellitteri, R. Stern, C. Shelton, & B. Muller-Ackerman (Eds.), *Emotionally intelligent school counseling* (pp. 185-199). Mahwah, NJ:

Erlbaum.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Tran, O. K. (2007).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schools: An investigation of massed versus distributed practice schedules and social validity of the Strong Kids curriculum in late elementary aged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Whitcomb, S. A. (2009). Strong Start: Impact of direct teaching of a social-emotional learning curriculum and infusion skills on emotion knowledge of first grad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Zins, J. E., Weissberg, R. P., Wang, M. C., & Walberg, H. J. (Eds.) (2004). *Building academic success o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What does the research say?*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ABSTRACT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Music Subject Related SEL Program Applied by Structure-Centered Cooperative Learning

Choi, Mi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ic subject related SEL program applied by structure-centered cooperative learning that was developed as a strategy for implementing SEL in school curriculum. For this, the music subject related SEL program was applied to sixty one students who were 5th and 6th graders in two elementary schools.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Strong Kids assessment tools, lesson videos, students' worksheets, teachers' journals, students' interview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usic subject related SEL program applied by structure-centered cooperative learning has positive effects on reduc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emotional symptoms, increasing the level of their social-emotional knowledge, and improving their social-emotional assets and resilience. Also, the program helps in improving SEL core competencies which are self-awareness, self-management, social awareness, relationship skills, and responsible decision-making. This indicates that SEL is necessary to be consistently implemented to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dolescent, and is useful for enhancing their social-emotional competence.

Key words: music subject related SEL program, structure-centered cooperative learning, social-emotional competence, elementary school music

투고일: 2월 27일, 심사(수정): 4월 7일(4월 12일), 게재확정일: 4월 12일